수국 만발 구례수목원으로 힐링여행

1㎞ 산수국 꽃길·스토리텔링 탐방로 등…25일~7월 31일 수국비누 만들기 등 행사

"탐스러운 수국 꽃동산 울긋불긋, 자연에 안겨 힐링하세요."

지난해 5월 개장한 전남도 제1호 공립수목원인 구례수목원이 여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곳 수목원에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탐스러운 수국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6월의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초여름에 가장 아름다움을 뽐내는 수국은 보라에서 진분홍, 쿨한 느낌을 주는 파란색, 핑크빛 연분홍과 백옥처럼 하얀색으로 울긋불긋 제철을 맞아 방문객을 반기고 있다.

자체 발광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구례수목원의 수국은 풍성한 매력과 함께 자연에 안겨 사람들에게 포근함을 전해준다.

구례수목원의 13개 전시주제원 중 외국화목원과 기후변화테마원에는 눈을 호강시키는 수국들로 가득해 많은 방문객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해 조성된 1㎞ 구간의 테마수국길에는 청초한 푸른빛의 산수국이 비단길처럼 자태를 뽐내듯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어 최고의 산책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구례수목원 곳곳에는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 여름 여행의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그만이다.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특색있는 장소로 그늘 정원에서 서어나무원을 거쳐 밤나무쉼터와 전망대 구간까지의 산책로를 따라 식물과 꽃들을 주제로 이야깃거리를 부여한 '스토리텔링 특화탐방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도 제1호 공립수목원인 구례수목원을 찾은 한 관광객이 꽃망울을 터트린 수국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구례군 제공〉

주요 전시주제원에 비치된 부엉이 스탬프를 찾아 방문 기록으로 남겨보는 '스탬프 투어'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데다 수목원을 관람하는 색다른 재미를 전해 준다.

구례수목원은 여름철을 맞이해 방문객들을 위한 미꾸라지 잡기 체험, 수국비누 만들기, 한지부채 만들기, 손수건 염색, 고슴도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7월부터는 매표소 앞에서 방문객의 힐링 쉼터가 될 식물 판매장 및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수국천지 아름다운 숲에서 이야깃거리 가득 담은 자연과 벗하여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도서관 가는 날' 눈길

광양교육지원청과 6~7월 '작가와의 만남' 등 진행

광양시가 어린이 독서력 향상을 위해 광양교육지원청과 2년 연속 추진해오고 있는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인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도서관과 친해지는 경험을 통해 일상회복을 돕고 독서습관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운영시기를 10월에서 6~7월로 조정하고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도 늘렸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증진하기 위한 '도서관은 내 친구'와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으로 구성됐으며 총 41회에 걸쳐 평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운영 중이다.

희망도서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먼저 '도서관은 내 친구' 수업에서 사서로부터 도서관 에티켓과 이용방법을 배운 후 자료실을 둘러보고 정보탐색 놀이인 '희망빙고게임'에 참여해 다양한 책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꿈싹갤러리에서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전시 중인 '김윤정·최덕규 작가의 방'을 관람한 후 도슨트로부터 해설을 들으며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이밖에 김윤정, 김준영, 미우, 유설화 등 국내 유명 그림책 작가가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양희망도서관(061-797-4299)으로 연락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 오곡면 다목적체육관 개관

배드민턴·탁구장 갖춰…7월부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곡성군 오곡면 다목적체육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곡성군은 오랜 숙원이던 오곡면 다목적체육관의 공사를 마치고 20일 개관식〈사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유근기 곡성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 기관 사회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데에 체육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원하며 개관을 축하했다.

곡성군은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돼 이번 오곡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게 됐다. 국비 10억원과 군비 18억원이 투입됐으며, 2019년 10월에 착공해 최근 준공을 완료했다. 연면적 936㎡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배드민턴과 탁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다.

곡성군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곡성군스포츠클럽과 연계해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 장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생활 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

'찾아가는 미래직업 특강'

순천만잡월드 25~26일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순천만잡월드는 오는 25~26일 이틀간 '찾아가는 미래직업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주최하고 순천만잡월드가 주관하는 이번 특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직업 멘토인 박창룡 대표와 함께 다양한 진로탐색과 관련된 직업체험까지 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강을 통해 진로를 탐색해보고 순천만잡월드 직업체험관에서 관련 직업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특강은 전남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루 40명(학생 20명, 학부모 20명)씩 온라인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학생 참가비는 1만5000원이며 학부모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만잡월드(061-725-71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순천만잡월드 외부광장과 5G체험관에서는 찾아가는 과학체험 행사 2022년 두드림 프로젝트(27일까지)가 진행중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신명나는 국악 경연 속으로

제43회 남도국악제 23~24일 여수진남체육관

'제43회 남도국악제'가 23일과 24일 이틀간 여수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는 첫째마당에서는 고수, 남도민요, 판소리, 무용 부문의 열띤 경연이 펼쳐진다. 5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남도 무형문화재 고흥 '마동매구'의 축하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둘째마당은 24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뿌리패예술단의 신명나는 모듬북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농악 부문 경연과 떡메치기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여수의 자랑스러운 민속놀이 현천소동패놀이도 함께 즐길 수 있다.

1979년 시작한 '남도국악제'는 매년 1500여명 이상의 국악인이 참가하는 전남도 대표 국악축제다. 올해 축제는 한국국악협회 전남도지회 주관, 여수시지부 주최, 전남도, 여수시, 한국예총, 전남예총의 후원으로 열리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남도국악제가 모두가 신명나는 가락에 어깨를 들썩이며 국악의 진수를 느껴보는 흥겨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